

조면호(趙冕鎬)의 조선사(朝鮮詞) 창작과 중국문학 수용 고찰

김영미*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조면호의 조선사 창작
3. 조면호의 중국문학 수용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19세기 조선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조면호는 창작한 詞의 수량과 창작방식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문인이다. 1인의 다작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던 조선 후기 시단에서, 조면호는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서 40개의 사조(詞調)를 활용하여 전사(填詞)했다. 특히 시를 통한 교류 활동으로 시문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면호는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창작사(唱和詞)를 창작했다. 조면호는 이별과 슬픔, 그리움의 감정을 자주 표출하면서도, 노년의 삶에 대한 통한과 깨달음,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사물을 대하는 유희적이고, 도교적인 인생관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면호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조면호는 중국 문학을 수용하면서 차운(次韻)과 은괄(隱括)의 창작 방법을 통해서 당(唐), 송(宋), 청(淸)의 유명 시인들의 작품을 모방하여 그 내용과 형식을 흡수했다. 그는 원작의 운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 수용하면서 원작을 모방하거나 혹은 분명하게 대비되는 특징을 드러내며, 단순한 문자의 유희가 아닌 하나의 창작기법으로서 차운을 활용했다. 아울러 조면호는 음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은괄의 창작방식을 사용하여 산문을 운문으로 바꾸는 등 창작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문학 창작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조면호, 창작사, 중국사, 차운, 은괄, 인생무상, 꿈, 유희적, 도교적 인간관

* 한국의국어대학교 강사

1. 들어가는 말

고려(918~1392) 선종(재위 1083~1094) 때부터 고려 왕실의 일원과 문인들이 전사(填詞)를 시작하면서, 이후로는 관리, 승려에 이르기까지 사를 창작하고 전파했다. 그러나 제언체 형식에 익숙한 고려의 문인들에게 장단구 형식의 사 창작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사용된 사조(詞調) 역시 제한적이었고 장르의 구분 또한 불분명했다. 예를 들면 고려 시대의 이곡(李穀, 1298~1351)과 김구용(金九容, 1338~1384)이 개인 문집에 ‘시’와 별도로 ‘사’라는 편제를 만들어 시사의 장르를 구분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인들 대부분은 사를 시와 같은 장르로 분류했다.

조선 시대에도 사는 시와의 장르 구분 없이 문인들의 문집을 차지했으나, 특이한 점은 사를 창작한 시인뿐 아니라 창작된 작품의 수량까지 눈에 띄게 증가했고,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 창작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의 역대 문인들 가운데 조면호(1803~1887)는 시인이면서 가장 많은 사를 창작한 시인이기도 하다.¹⁾ 조면호는 5천여 제의 한시, 3수의 부, 236편의 산문을 창작했고, 40조 63수의 사²⁾를 지었다. 이는 작품의 수량과 사조의 운용에 있어서 조선의 문인들을 능가하는 성과이다. 작품 수량의 뛰어난 성과에 못지않게 조면호의 사 창작능력은 고려의 유명 시인인 이제현(李齊賢, 1288~1367)과 비견될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³⁾

1) 조면호의 생애 및 교유 등은 다수의 논문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중복은 피하고자 대략적인 상황만 소개하도록 한다. 조면호의 생애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의 저서와 논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김명호, 『옥수 조면호의 『西事雜節』 전후편에 관하여-병인·신미양요의 시적 형상화』, 『古典文學研究』 20, 한국고전문화회, 2001; 김용태, 『玉垂 趙冕鎬의 紀俗詩研究』, 『東方漢文學』 24, 동방한문화회, 2003; 김용태, 『산문 작품을 통해 본 玉垂 趙冕鎬의 문학적 지향』, 『韓國漢文學研究』 36, 한국한문학회, 2005; 김용태,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옥수 조면호의 시세계』, 파주: 돌베개, 2008.

2) 조면호의 『玉垂集』 권27 『詩餘』 및 『拾遺』 권1에 총 40조, 63수의 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行春橋』는 중국에 없는 사페명으로 조면호의 창작곡이다.

3) 한국 사단에서 조면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차주환 선생은 “조면호는 사의 수량과 질에 있어서 한국 사문학사의 일대 이제현 이후의 뛰어난 한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한국 사문학 연구 - 자료 정리를 중심으로(4)』,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1965, 13쪽)고 했고, 류종목 선생 또한 “조면호는 우리나라 문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조면호와 그의 사 작품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차주환, 류종목, 류기영, 조창록 선생에 의해서 조면호의 중국사 수용에 관한 연구,⁴⁾ 조면호의 사 작품에 관한 분석⁵⁾ 등이 진행되었다. 국외 연구로는 조면호의 송사 수용연구, 조면호의 사풍에 관한 연구, 은팔에 관한 연구가 있다.⁶⁾ 그러나 분석된 작품이 다소 제한적이거나 한국의 사문학을 다루면서 조면호의 사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만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그동안 분석되지 않은 조면호 사 작품을 살펴보고 그의 사 창작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조면호(趙冕鎬)의 조선사(朝鮮詞) 창작

무엇보다도 19세기 조선사 창작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다작 작가가 많다는 것이다. 조면호는 이들 다작 작가 중 작품의 수량과 창작방식의 활용에 있어서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조선의 사 창작은 주변 문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징이 있으므로,⁷⁾ 본 장에서는 조면호가 교류를 통해 창작한 창화사를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1) 문인들과의 교류(交遊)를 통한 창작

19세기 시인들 가운데 조면호, 고성겸, 이유원, 신응선, 김윤식 등은 다수

여러 가지 작사기법을 실험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사의 면모를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高麗 및 朝鮮 文壇에 있어서의 中國 詞文學의 수용과 전개』, 『中國學報』 40, 한국중국학회, 1999, 215~216쪽)라고 했다.

- 4) 김현주·김영미, 『朝鮮詞人趙冕鎬之次韻中國詞考察』, 『中國研究』 61, 중국학연구회, 2014; 柳基榮, 『蘇軾與韓國詞文學的關係』, 『復旦學報』 第6期, 1997; 柳種睦, 『高麗 및 朝鮮 文壇에 있어서의 中國 詞文學의 수용과 전개』, 『中國學報』 40, 한국중국학회, 1998.
- 5) 조창록, 『玉垂 趙冕鎬의 '詞'에 대하여』, 『漢文學報』 12, 우리한문학회, 2005.
- 6) 楊焄, 『漢籍東傳與韓國樂括詞的創作』, 『中山大學學報』 第50卷 第5期, 2010; 靳亞州, 『趙冕鎬對宋代詞人的接受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李寶龍, 『朝鮮詞文學發展論略』, 『東疆學刊』 第26卷 第2期, 2009.
- 7) 유영혜, 『19세기 사문학 유행의 배경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255쪽.

의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작가들로, 이들은 문집 안에 따로 편제를 두어 사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사에 대한 일정한 개념이 형성되면서 ‘시여’라는 사의 별칭이 집중되어 나타났고, 사 창작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⁸⁾ 사패의 운용에 있어서도 고려·조선 초에 다수를 차지했던 『巫山一段雲』사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다양한 사가 새롭게 창작되었는데, 조면호 또한 『무산일단운』사 대신 40개의 사조를 활용했다.

조면호의 문집인 『玉垂集』에 수록된 사 가운데 5수는 조면호가 동료나 후배에게 증답 혹은 창화의 방식으로 지은 작품이다. ‘창화’는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작품에 운을 맞추어 화답하는 창작방식으로서, 전체 사에서 차지하는 수량은 많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조면호가 사를 통해 문인들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옥수집』에 수록된 창화사로는 「만강홍·신계전에게 화답하며 바침」과 「남향자·계전에게 화답하며, 을유년에 꿈을 쓰다」, 「여몽령·윤보산에게 화답함」, 「작교선·소강에게 화답하며 춘부장 강옹 선생께 바침」, 「태상인·소산에게 드림」, 「점강순·미당에게 화답함」이 있다. 이들 창화사에는 책 읽는 선비의 모습⁹⁾과 교류활동에 대한 묘사,¹⁰⁾ 꿈에 관한 묘사, 동료에 대한 칭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¹¹⁾

조면호는 70~80세에 짧은 공직생활을 했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직무가 없는 한직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¹²⁾ 궁핍한 생활과 초리한 행색을 한 선비의 모습은 윤보산¹³⁾에게 화답한 『여몽령』에서도 엿볼

8) 속요 유행으로 인한 음악문화의 변화, 清代 사의 부흥, 사를 통한 교류 활동으로 인한 사문화 확대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유영해, 앞의 논문, 247~256쪽.

9) 『點絳脣·和眉堂』은 미당 김영수(金永壽)에게 화답한 작품으로, 비바람 부는 가을밤 책을 읊조리는 선비의 모습과 낡은 책 속에 담긴 아득한 역사를 추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 창화사인 「太常引·贈素山」뿐만 아니라 소산 이용진과의 교류는 「太常引·素山宅會」, 「謁金門·素山屋會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 이쉽게도 창화사의 원작은 확인할 수 없어서 본고는 조면호의 작품만 고찰하도록 한다.

12) 『옥수집』 권31, 산문 「謝弗律」은 서예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글씨를 쓰고 싶어도 쓸 종이 없는 형편(而今年何年, 苦無寸楮)임을 벗들에게 알리려 했던 것으로, 문방구나 살림살이를 도와 달라는 내용의 시나 서간문이 종종 보이는데, 이를 통해 조면호의 경제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김용태, 앞의 논문, 437~438쪽.

13) 윤상의(尹象儀, 1825~1878). 본관은 坡平, 자는 士璿으로 1874년 은진 현감, 1875년 안산 군수를 역임했다.

수 있다.

여몽령·윤보산에게 화답함

피로워라, 침상 가득 곱팡이 자국, 걱정스럽구나, 세찬 가랑비 주름을 가리네.
 띠로 엮은 서재는 배처럼 물이 새니, 마지못해 새로 지은 시 크게 읊조리네. 허약하
 구나, 허약하구나. 헛되이 매었네, 서쪽 연못의 연꽃 즐기.¹⁴⁾

우선 사패 『여몽령』의 형식을 살펴보면 6. 6. 5, 6. 2. 2. 6. 의 단조 33자에 5개의 측운을 사용하고 한 개의 첩운을 사용한다. 조면호는 『여몽령』 4수를 창작했는데,¹⁵⁾ 위에 묘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침상에 가득한 곱팡이 자국과 서재에 비가 새는 상황을 서술했다. 서재에 물이 새고 있어도 소리 높여 시를 읊조리는 선비의 모습과 잦은 병치레에 연못의 연꽃 즐기만 공연히 매었다는 고백 또한 곤궁한 삶과 나약한 선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다.

조면호는 운상의, 김윤식과 자주 어울려서 시를 읊었는데, 특히 운상의는 맑고 고상한 성품에 호성이 지극했고, 시를 짓는 습씨가 뛰어났다고 한다. 친상을 당하고 슬픔으로 인해 병이 나서 죽자, 김윤식은 그의 죽음에 시를 지어 애도를 표했고, 조면호 또한 『안산 운상의를 곡하며』에서 “운 집안이 옥청대에서 내려와 향안 앞으로 차례로 돌아가네. 신세 해 유희면 족하다며, 대선이 재촉하여 소선을 불렀네”¹⁶⁾라고 애도했다. 조면호의 시를 통해서 그의 “유희적 인생관”을 알 수 있는데, “신선을 추구하는 도교적 인생관으로서 유희인간”¹⁷⁾이 잘 표현되고 있다. 조면호의 사에도 그의 도교적 인생관이 나

14) 『如夢令·和尹寶』“山懊惱徽痕牀堯。倜傥雨絲簾映。茅齋漏如船，強把新詩高詠。多病。多病。虛負西池荷柄。”

15) 조면호는 『여몽령』 4수에서 각각 봄날의 경치, 비 갠 밤의 풍경,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가난한 선비의 생활을 표현했다. 특히 『여몽령·무제』는 첩자를 사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청각적 효과로 표현했다. 『여몽령』은 본래 五代 後唐의 莊宗이 처음으로 창작한 사패로 劉農과 阮肇가 선녀와 이별한 뒤의 깊은 그리움을 묘사한 내용으로 이후에도 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을 노래했다.

16) 『옥수집』 권20, 『哭尹安山象儀』“全家降自玉清臺。香案前頭次第回。五十三年遊戲足。大仙催喚小仙來。”

타나 있으며, 사패 『작교선』¹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작교선 · 소강에게 화답하며 춘부장 강옹선생께 바칩

노을 서린 신선의 궁전에, 맑은 바람 불고 푸른 시냇물 흐르는데, 지조가 굳은
사람 건강하시네. 옥 같은 자태에 봄 같은 기운, 70년간 마음 씀이 너그럽구나.

신선 같은 성품에, 신농씨와 복희씨의 업적 이루고, 태평성세의 재상이 되시었
네. 패옥차고 다시 천자를 버려 가서, 푸른 산 확 트인 주렴을 사이에 두고 항상
마주 앉으시네.¹⁹⁾

자하(紫霞)는 신선이 사는 곳에 서리는 노을로 곧 신선이 사는 궁전을 말하며, 동부(洞府) 역시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조면호는 맑은 바람이 불고 푸른 시냇물 흐르는 아름다운 곳에서의 윤상의 부친의 건강한 모습을 묘사했다. 상편에서는 윤상의 부친의 자태와 기운, 너그러운 마음을 칭송했다면, 하편에서는 윤상의 부친이 이룬 업적과 성품을 중국의 전설 속 황제인 신농과 복희씨가 이룬 업적에 견주어 칭송한다. 윤상의 부친의 장수를 축원하는 조면호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사 전체의 분위기는 신선, 신농, 복희씨 등 도교적 색채와 함께 신선 세계를 지향하는 조면호의 도교적 인생관을 보여준다. 조면호는 계전(桂田) 신응조²⁰⁾에게도 두 편의 창화사를 썼다.

남향자 · 계전에게 화답하며 을유년에 꿈을 쓰다

한풀 꺾인 더위에 새벽녘 텅 빈 이불, 다시 들리는 오동잎 스치는 바람 소리.
이 말은 힘들이지 않고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해도, 나는 들리지 않으니, 세상만사

17) 김용태, 「산문 작품을 통해 본 玉垂 趙冕鎬의 문학적 지향」, 『韓國漢文學研究』 36, 한국한문학회, 2005, 448~453쪽 참고.

18) 『작교선』은 “七夕에 직녀가 강을 건너려는데, 까치가 다리가 되어 주었다”는 고사에서 곡명을 취한 것으로 본래 견우직녀의 만남을 노래한 사패이다. 4, 4, 6, 7, 7. 4, 4, 6, 7, 7. 의 쌍조에 상, 하편 각각 28자에 모두 56자를 사용하고 각각 두 개의 측운을 사용한다.

19) 『鶴橋仙 · 和小甌呈尊甫顛翁先生』 “紫霞洞府, 清風溪水, 有個高人無恙. 冰姿如玉氣如春, 七十年, 遊心昭曠. 神仙道德, 義農事業. 成就升平宰相. 珮玉時復去朝天. 常對坐, 疎簾翠嶂.”

20) 신응조(申應朝, 1804~1899)는 조선전기 예조관서, 관부사,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자는 幼安, 호는 桂田, 苟菴이다. 저서로 『苟菴集』이 있다.

다 들리지 않네. 꿈이라도 몽롱하지 않으니, 은비화 자태로 맑은 술 채우네. 그대 항상 마음이 끈음을 알겠으니, 영롱하여라. 한 점 무소의 빨처럼 작은 마음 꿰뚫어 보네.²¹⁾

『남향자』는 당 교방곡으로 27자에 2개의 평운, 3개의 측운을 썼으나, 남당 때에는 평운체로 개작하여 56자에 상, 하편 각각 4개의 평운을 사용했고, 송 이후에는 주로 이 형식을 많이 따랐다. 조면호의 『남향자』 역시 56자에 4개의 평운을 사용하고 있다.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세상만사 들리지 않으나 신응조의 맑은 자태와 끈은 마음은 알겠으니, 무소의 빨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항상 잘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만강홍·신계전에게 화답하며 바침

신선이 사는 세 궁전, 속세 아니니, 소나무 생황 소리에 학의 기운 나네. 아침저녁으로 보는, 푸른 구름 깊은 곳에, 신선은 부귀하네. 진실로 진리가 있는 것을 아는가? 봉인된 제사용 상주문에 단로는 끊고, 인간 세상 굽어보니, 소란스럽다가 물거품이 되어, 흐느낄만하네. 수련을 하게 되면, 언제쯤일까. 번뇌를 제하니, 걱정과 두려움 없구나. 이름다운 누대 12층에, 6수의 가벼운 옷 입었네. 안개와 구름을 마시고 화식하며, 사사와 경전을 음미하며 질서를 구분하네. 서적에 드리운 공덕 인간 세상에 펼치니, 또한 뛰어난 맛이라네.²²⁾

『만강홍』은 송대 이후로 작가 대부분이 류영(柳永)의 격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93자에 전편은 4개의 측운, 후편은 5개의 측운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모두 입성운을 사용한다.

이 작품 역시 신응조를 찬미한 작품이다. 상편에서 보이는 인간 세상은 소

21) 『南鄉子·和桂田寫夢, 乙酉』“殘暑曉衾空。又聽梧桐葉底風。此語無勞提到耳, 吾聾。聾盡人間萬事中。夢也不朦朧。銀花姿碧酒崇。知爾常時情緒重, 玲瓏。一點靈犀徹寸衷。”

22) 『滿江紅·和呈申桂田』“洞府三清, 非塵世。松笙鶴氣。朝暮遇、碧雲深處, 神仙富貴。眞箇有眞知道否。閒檢絳籙丹爐沸。俯下界、擾攘轉浮瀛, 堪歎歎。修到得, 幾時到。除煩惱, 無憂畏。便瑤臺十二, 六銖衣衣。霧吸雲餐烟火胃, 史膏經腹分經緯。竹帛垂、功德被人間, 還一味。”

란스러우며 물거품이 나는 곳으로 슬픈 곳이지만, 신응조가 속세를 떠나 수련하는 그곳은 걱정과 두려움 없는 곳으로, 도교에서의 화식을 하고 사서와 경전을 음미하며 지내는 곳이다. 상편의 “인간 세상 굽어보니, 소란스럽다가 물거품이 되어, 흐느낄만하네”와 하편의 ‘서적에 드리운 공덕 인간 세상에 펼치니, 또한 뛰어난 맛이라네’는 정면으로 대조를 이루며 작품 전체에서 해학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²³⁾ 이처럼 조면호의 창화사에는 신선 세계를 지향하는 그의 도교적 세계관 및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다.

2) 인생의 철리(哲理)를 통찰한 창작

조면호는 1855년을 전후해서 1885년까지의 30여 년간 사를 지었는데,²⁴⁾ 그나마 50세 이후로는 벼슬과 크게 인연이 없어서 중앙의 말직을 거치며, 몇 달의 유배 생활을 끝으로 벼슬살이를 끝마쳤다.²⁵⁾ 따라서 만년에 지은 작품들이 많다 보니 늙음에 대해 한탄하거나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면서 인생을 관조하는 자신의 철학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보인다. 대표적인 작품 「백자령·늙음」, 「수룡음·늙음을 한탄함」, 「만강홍·크게 탄식함」, 「청옥안·무제」, 「최고루·무제」에서는 노년의 삶을 슬퍼하거나 인생의 덧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사는 “작가의 다른 일면의 감정생활을 감히 표현할 수 있고, 또 긍정할 수 있는 일종의 진실하고 솔직한 문체”²⁶⁾로서 조면호는 “시로 말하기 어려운 것을 완곡하게 사에 의탁”²⁷⁾하여, 좀 더 편안하고 솔직하게 노년에 드는 생각을 보여주었다.

백자령·늙음

23) 차주환, 『한국사문학연구(4)-자료정리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8(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965, 183쪽.

24) “조면호의 생애는 修學期(출생~1836년), 任宦期(1837~1858년), 開居期(이후 만년)의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김명호, 앞의 논문, 307쪽; 김용태, 앞의 저서, 24쪽.

25) 김용태, 앞의 논문, 445쪽.

26) 楊海明, 이종진 역, 『당송사풍격론』, 서울: 신아사, 1994, 11쪽.

27) 朱彝尊 『曝書亭集』 「陳緯雲紅鹽詞序」 “蓋有詩所難言者, 委曲倚之於聲.” 위의 책, 5쪽. 재인용.

흰 말이 지나는 것을 문틈으로 보듯 인생은 덧없고, 고개 돌리니, 누구에게 머물러 배회하게 하라. 마고를 보니 봉래도의 바다는 얇고, 신선의 장기에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르니 두렵구나. 가을바람에 낙엽 지고, 윤달에 매실 익으니, 몸은 장원의 나비가 되었네. 모두 도를 즐기며 편안하니, 탄식하노라 문장 짓는 일. 일찍이 알았던 당대의 뛰어난 미인과 어린 용사는 같은 마음으로 백발을 뽑네. 삼십 년간의 비바람, 이별은 반드시 적당하게 끝나야 하네. 수놓은 이불에 향기는 사라지니, 약로에 단을 넣고, 경전 유마경을 끌어당기네. 지난날의 조운은, 내가 늙었다고 피하며 싫어하지 않았었네.²⁸⁾

조면호는 모두 2수의 『백자령』²⁹⁾을 지었다. 『장자』에서 보이는 흰 말이 문틈으로 지나는 것처럼 빠르게 흐르는 시간과, ‘玉質의 난가 고사’³⁰⁾를 인용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고’와 ‘봉래’, ‘장원의 나비’, ‘단’ 등의 도가적 색채의 어휘를 사용하여 세속을 초월한 삶에 대해서 언급한다. 한편에서는 한 시대에 뛰어난 미인과 영웅호걸이 어느새 나이가 들어 백발을 뽑을 나이가 되었음을 언급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토로한다. 나이가 들어 허약해진 몸과 늙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신의 처지는 소식과 애첩 조운의 고사³¹⁾에 빗대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수놓음 · 늙음을 탄식함

작은 뜰에서 장안을 내려다보니, 은박 안장에 멋진 수레 무리지어 달리네. 장대 거리에, 두릉고 근처, 화창한 봄 날씨. 천금 같은 허락, 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네. 영웅호걸이란, 고금에 누구였던가, 경중에 새긴 이름과 뛰어난 업적

28) 『百字令·題老』“白駒過隙，轉頭也、教誰駐它躑躅。眼見麻姑蓬海淺，爛柯仙碁應劫。落葉秋風，黃梅閨月，身是莊園蝶。都休休矣，歎息文章事業。早知絕代佳人，少年豪俠，白髮同心鑑。三十年來風和雨，分別從須妥帖。綉被香空，藥爐丹就，經卷維摩攝。夙世朝雲，無嫌我老相怯。”

29) 『백자령』은 『念奴嬌』, 『醉江月』 등으로 불리며, 음절이 드높고 우렁차서 영웅호걸들이 부르기에 좋아하는 사조였다. 龍榆生, 『唐宋詞格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118쪽.

30)晋의 나무꾼 王質이 동자들이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느라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를 정도로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잊었다는 고사를 말한다.

31) 蘇軾의 애첩 王朝雲은 소식이 강등되어 귀향 갈 때마다 그의 걸을 지켰지만, 결국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난다. 소식은 『雨中花慢·嫩臉羞蛾』, 『西江月·玉骨那愁』를 지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은 운대를 수놓았네. 술 권하니 그대 장수하시길. 백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천년이 또 오네. 자란과 설미, 경지와 요초, 마고 또한 야위었구나. 이 계획은, 몇 번을 생각해봐도, 똑같이 머리 굽적이며 불안해하네. 서늘한 그늘, 늘 있는 산 속 창가의 푸른 대나무 미주하고, 변함없이 책을 읽네.³²⁾

상편에서는 한(漢) 명제(明帝)때 공을 세워 남궁의 운대(雲臺)에 초상화가 걸렸던 많은 장수를 언급하면서 영웅호걸이라 부르던 자들도 이제는 그 이름과 업적만이 남았음을 한탄한다. 하편에서는 신령한 새인 자란과 사슴 설미, 먹으면 장수한다는 불로초인 경지와 요초를 권하고, 『신선전』에 등장하는 선녀 마고 또한 야위 만큼 세월이 흘렀음을 언급하면서 화려했던 과거의 삶을 회상한다. 세속을 초월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이 변함없이 책을 읽는 자신의 모습 또한 묘사하고 있다.

「만강홍·크게 탄식함」역시 조면호가 20년간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무정한 세월에 머리카락이 어느새 백발이 되었지(忽無端、鬢髮已成絲)”만, 결국 “가지 끝에 잠시 매달린 시든 꽃(算此身、暫有似枝頭。殘殘紅綴)”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다. 노년에 들어선 인간의 여러 가지 근심을 느끼며 이를 몹시 탄식하고 있다. 특히 이 시는 “비유가 정묘(精妙)하며, 잔홍(殘紅)이라도 붙어있는 것으로 말한 데는 마음만은 늙지 않았다는 기상(氣象)이 엿보이고, 능숙한 사필(詞筆)이 구사(驅使)되어 있다”³³⁾는 평가를 받았다. 「청옥안·무제」³⁴⁾에서도 “앞으로 남은 인생 헤아려보니 얼마인가. 열은 안개에 시들어버린 풀, 밤바람에 날리는 버들개지, 가끔 내리는 황혼의 비와 같구나(算到餘生今幾許。淡煙衰草，晚風輕絮。陣陣黃昏雨)”라고 표현했다.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모습을 통해 저자는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최고루·무

32) 「水龍吟·歎老」 “小園俯瞰長安，銀鞍繡轂羣驂。章臺街裏，杜陵橋畔，好春天候。然諾千金，死生契活，甚難希有。英雄豪傑，古今誰是，景鍾名業雲臺繡。將進酒君更壽。百年無盡千年又。紫鸞雪麝，瓊芝瑤草，麻姑還瘦。這個經綸，幾般思量，一例搔首。對清陰、自有山窓綠竹，讀書依舊。”

33) 차주환, 앞의 논문, 183쪽.

34) 賀鑄의 「青玉案」에 차운한 작품으로, 하주의 「青玉案」이 여인에 대한 추억과 가담 모를 슬픔을 노래했다면, 조면호의 「청옥안」은 노년에 대한 탄식을 노래했다.

제』에서도 삶과 그리움, 늙음에 대한 조면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최고루·무제

그대 알지 못하는가, 한밤중에 와서, 비바람 몰아쳤다네. 몇 겹의 창문 단단히 닫고, 등잔불 환하게 밝혔네. 산 그려진 병풍 등지고, 각침 던지니, 잠은 쉬이 오지 않는구나. 견더왔으나, 병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견더왔으나, 늙음은 사람을 죽게 하네. 실로 견디기 힘든 것은, 꿈속의 그리움이라네. 백 년의 애쓰고 고생한 삶을 누구에게 말하랴, 오경에 드는 걱정 누가 알랴. 거울 속 난새는 울며, 나를 비웃겠지, 어리석게 산다고.³⁵⁾

상편에서는 한밤중에 몰아치는 비바람에 잠 못 드는 상황을 서술하고, 하편에서는 병도, 늙음도 견더왔으나, 꿈속에서 조차 사무치는 그리움은 견디기 힘들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비 오는 새벽에 잠이 깨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회고적 성격이 짙다. “백 년의 애쓰고 고생한 삶”이라는 표현에서 조면호의 지난 삶을 짐작할 수 있고, 병든 몸과 견디기 힘든 생활에 대한 고백, 거울에 비친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모습을 통해 당시 저자의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최고루』는 남송 이후의 작가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한 사조로, 81자에 전편은 4개의 평운을, 후편은 3개의 평운을 사용한다. 문장의 기개가 가볍고 유창한 듣기 좋은 곡으로, 이후 원(元) 산곡(散曲)의 효시가 되었다.³⁶⁾ 특히 조면호는 단단히 단고(下沈沈), 환하게(拈熒熒)처럼 첩자를 사용하여 작품의 음악적 성격을 부각 시켰다.

『이정연·생일을 자축하다』³⁷⁾에서는 “세상사 명예와 이익에는 귀 막고 눈멀었으니, 천척 간의 정다운 이야기에 기분 좋아라(龔瞽世間名利事, 且悅

35) 『最高樓·無題』“君知否, 在半夜中之。打雨暗風時。下沈沈數重簾子, 拈熒熒一棧燈兒。背山屏, 拋角枕, 就眠遲。耐過了、病將人困也。耐過了、老將人死且。真不耐、夢相思。百年契活憑誰說, 五更心事教誰知。鏡鸞啼, 應笑我, 生如癡。”

36) 龍榆生, 앞의 책, 184쪽.

37) 『離亭燕·題自壽, 次孫浩然詞意』, 사괘 『이정연』은 『張子野詞補遺』의 『離亭別宴』의 단어에서 취하여 사조명으로 삼았다. 장선은 77자를 지었으나, 다른 사가들은 대부분 72자를 사용했다. 상·하편 각각 4개의 측운을 사용한다.

姻親情話)”라고 하며, 세속의 명리를 떠난 소박한 생활을 노래했다. 조면호는 그리움과 이별의 감정을 서술하면서도 인생을 잠시 쉬어가는 정자에 비유하며, 자신의 인생철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상사·무제』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장상사·무제

천광정, 해운정은, 남북으로 나누어 나그네 떠나보내는 정자라네. 인생은 도처가 정자라네. 올해의 정, 지난해의 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없는 정에, 어느 해에 이 감정은 끝이 내려나.³⁸⁾

나그네를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정자를 우리 인생에 비유한 작품으로 조면호의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년에도 올해도 이어지면서 끝이 나지 않는 이 감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한다. 한자 독음의 후과 情이 동음자인 것을 빌어서 이별과 그리움의 정을 재치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한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³⁹⁾

조면호는 일생토록 끈 꿈을 모티브로 하여 시와 문장을 다수 창작했으며,⁴⁰⁾ 『行春橋』⁴¹⁾ 역시 꿈을 모티브로 하여 지은 사이이다.⁴²⁾

38) 『長想思·無題』“天光亭。海云亭。串北分南送客亭。人生到處亭。今年情。去年情。朝還暮又不斷情。何時了此情。”

39) 차주환, 앞의 논문, 175쪽.

40) 김용태, 앞의 논문, 427쪽; 조면호의 꿈과 관련된 ‘記夢’詩는 양승목의 『옥주 조면호의 기묘류 글쓰기와 자아의 탐색』, 『민족문화사연구』 64,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참고. 조면호는 “실제로 잠을 자다가 꾸는 꿈, 그것으로 기록으로 남긴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신이 꾸는 꿈’이라는 단일한 제제로 총 140편의 작품을 지었다. 113쪽.

41) 『행춘교』는 조면호의 自度曲으로 중국의 사폐명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사조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미비하나, ‘한국 사문학사에서 自作詞調에 의한 이러한 사작의 시조는 이 방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차주환, 앞의 논문, 176쪽.

42) 조면호는 『행춘교』의 서문에서 “꿈속에서 본 다리 기둥에 제목을 붙인 사이다. 다리에 행춘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어느 곳에 있는 것인지, 과연 진짜로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사는 또한 어느 성물에 부합 한지 알 수 없으나, 다만 꿈의 인연이 기이하여 여기에 싣는다(夢題橋柱詞也。橋以行春名。未知何處。果真有是。此詞亦合何聲。而特奇其夢緣。姑載于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제방 위엔 버드나무, 제방 아래엔 물이 흐르네. 모두 인간사 고금의 근심을 잡고, 묻노니 내년의 봄빛인가. 제방은 제방이고, 다리는 다리이나, 사람은 버들 그림자처럼 멀어지네.⁴³⁾

조면호의 문학세계에서 이처럼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 역시, 그의 “노년의 인생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면호는 특히 노년기에 들면서 인생은 한바탕의 꿈이라고 종종 언급했고, 현세에 집착하지 않은 허무적인 세계관을 피력했다.⁴⁴⁾ 이러한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모어아·회포』에서 “노래하고 춤춰라. 흠뻑 취하니 인생이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전에 고될 뿐이라네. 한 번 떠나면 아득한 것을, 재자가인은, 뒤라서 술 깬 곳 기억하라”⁴⁵⁾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어차피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실컷 취하고 충분히 즐길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이런 표현 역시 현실에 집착하지 않은 허무적인 세계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다양한 제재(題材)를 활용한 창작

조면호의 사에 활용된 제재를 보면 이별과 슬픔, 그리움의 감정에 관한 묘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봄과 가을의 정경 묘사 및 세월에 대한 감회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특이한 점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 또한 일상에서 접한 병풍 자수, 그림 등의 제재를 활용하여 표출했고,⁴⁶⁾ 그 밖에 한 여름의 찌는 더위, 한밤중에 타는 초, 서첩에 대한 감상, 모란의 아름다움, 한낮의 열기, 집에서 쉬면서 느끼는 생각, 독서 등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일상의 감정을 표현했다.

43) 『行春橋』“夢題橋柱詞也。橋以行春名。未知何處。果真有是。此詞亦合何聲。而特奇其夢緣。姑載于此。堤上楊柳。堤下水流。捻把人間古今愁。試問明年春色。堤是堤橋是橋。人似柳影遙。”

44) 김용태, 앞의 논문, 432쪽.

45) 『摸魚兒·題懷』“歌且舞。且盡醉、人生畢竟歸黃土。生前只苦。一去一茫然,佳人才子,誰記酒醒處。”

46) 『撲蝴蝶·題屏畫』는 산수와 병풍의 수놓인 그림을 보고 이별의 한과 그리움의 정을 노래했고, 『踏莎行·題姜對山小畫』는 대산(對山) 강진(姜潛, 1807~1858)의 그림에 題를 하여 비 내린 봄 물결 속에 나루터에 선 나그네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별의 쓸쓸함을 표현했다.

태상인·집에 돌아가 잠깐 쉬다

처마에 달린 옥마는 쟁그랑 울리고, 한가롭게 대나무 사이 정자로 걸어가네. 먼 숲에서 우는 새소리 듣기 좋아라. 짝을 구하듯, 앞뒤로 울어대는구나. 막 끊여낸 차처럼, 막 태운 향초처럼, 이때의 감정 쓰고 싶었네. 갑자기 어두웠다 갑자기 밝아 지니, 원컨대 술잔 잡고 수천 번이고 깨고 싶지 않구나.⁴⁷⁾

처마의 풍경 소리, 숲속 새소리의 청각적 효과, 막 끊인 차와 막 태운 향초의 후각적 효과를 사용하여 여유로운 일상을 표현했다. “이때의 감정 쓰고 싶었네”의 말처럼 조면호는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을 사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사괘 「태상인」은 49자에 상편은 4개의 평운을, 하편은 3개의 평운을 사용하고, 각 구의 끝에서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거성(去聲)을 사용한다.⁴⁸⁾ 조면호는 모두 10수의 「태상인」사를 창작했는데, 상편에서는 령(鈴), 정(亭), 청(聽), 성(聲)의 운을 사용했고 하편에서는 정(情), 명(明), 성(醒)의 동일한 운을 사용했다. 모든 작품들이 시각과 청각의 효과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태상인·도둑이 뜰을 다녀가다

누가 귀를 막고 교묘히 방울 훔칠 수 있으랴, 때마침 단혀있던 우리 정자. 뜰에선 아무도 소리 듣지 못했네. 어찌 알랴, 장씨, 이씨 소리를. 산사나무 열매 맺고, 산두근 열매 품기까지, 오래도록 마음을 썼네. 열매 따러 가서 세어보니 여전히 밝게 있지만, 정원사 말하길, 기운 내어 깨어있으라네.⁴⁹⁾

애를 쓰며 키운 산사나무와 산두근 열매를 도둑맞게 된 일상의 생활을 묘사했다. 방울 소리, 사람 소리의 청각적 효과가 나타나고, “오래도록 마음을

47) 「太常引·歸家少憩」“鳴檐玉馬撒鈴鈴。閒步竹間亭。幽鳥堪一聽。求伴侶、前聲後聲。如茶初沸，如香始熱，欲寫此時情。乍眩乍分明。願持酒、千場未醒。”

48) 龍榆生, 앞의 책, 23쪽.

49) 「太常引·偷兒過園」“誰能遮耳巧偷鈴。適然閉吾亭。園裏沒人聽。那由識、張聲李聲。山查結子，山荳抱莢，久自費心情。摘去數還明。園丁說、提撕得醒。”

썼네”라는 표현에서 나무 열매에 저자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고, 도둑이 들어 열매를 수확하지 못할까봐 가슴 졸였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태상인』에서는 밤의 정경과 동쪽 정자에서의 즐거운 모임, 새벽녘 강한 빗줄기에 느끼는 감정 등에 대해 묘사했다.

조면호는 추사 김정희(1786~1856)에게 예서를 배우고 글씨를 보내며 그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⁵⁰⁾ 예서체에 대한 감상을 사에 표현하기도 했다.

억진아·예서를 본며 쓰다

얼마나 황홀한가, 산속 집 창가에 자고 일어나 서첩 펼치고 쉬네. 서첩 펼치고 쉬네. 마음에 드는 종지와 먹, 누런 종이 모아 쓴 글씨의 골격. 검지와 중지를 갈고리처럼 굽히고 팔뚝 들어, 가는 털까지도 다투네. 난새가 우뚝 서고 봉황이 머무르며 안개와 구름 피어오르고, 안개와 구름 피어오르네. 二京의 고풍스러운 정취에, 아득하여라 나루를 건너는 뗏목.⁵¹⁾

사과 「억진아」는 「秦樓月」이라고도 하며, 46자에 전후편에 각각 3개의 측운과 1개의 첩운을 사용하거나 입성운을 쓰기도 한다.⁵²⁾ 위 작품은 한 대(漢代) 글자체인 예서의 서첩에 대한 감상문으로, “억진아의 憶字에 부쳐서 ‘二京古色, 蒼茫津筏’이라 하여 慕古의 情을 披瀝한 것이다.”⁵³⁾ 특히 하편에서는 붓을 잡는 운필법의 하나인 ‘쌍구법’을 사용하여 서첩의 글씨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쌍구법은 팔을 바닥에 대지 않고 검지와 중지, 엄지의 동일한 힘으로 팔 위 아래의 힘에 따라 붓을 눌러 글씨를 쓰는 운필법이다. 난새가 서고 봉황이 머무는 것과 같은 대범하고 뛰어난 필치와, 안개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과 같다는 표현에서 예서체의 기운을 엿볼 수 있겠다.

50) 『阮堂全集』, 「書牘」, 제2권.

51) 「憶秦娥·臨隸」, “何恍惚。山窓睡起攤書歇。攤書歇。稱心楮墨, 鍾黃筋骨。雙鉤懸腕爭毫髮。鸞停鳳泊烟雲發。烟雲發。二京古色, 蒼茫津筏。”

52) 龍榆生, 앞의 책, 75쪽.

53) 차주환, 앞의 논문, 186쪽.

3. 조면호(趙冕鎬)의 중국문학 수용

조면호는 중국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시를 지었고, 두보의 시에 차운하기도 했는데,⁵⁴⁾ 중국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차운과 은팔의 창작수법을 사용하여 13사조 15수의 시를 지었다. 사의 운율에 익숙하지 않아서 창작에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의 문인들은⁵⁵⁾ 기존 작품의 운을 빌리는 차운의 방법을 사용했고,⁵⁶⁾ 혹은 기존 작품에 가사를 조금 추가하고 덜어내어 가사를 고치는 창작 방식인 은팔을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차운과 은팔의 두 가지 창작수법으로 나누어 조면호가 어떻게 중국 문학을 수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차운을 통한 중국사 수용

화운(和韻)은 이미 창작된 시의 운각(韻脚)을 사용하여 같은 유형의 새로운 시를 만드는 창작 방법으로서 차운, 의운(依韻), 용운(用韻)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 또한 창화의 방식으로, 차운은 보운(步韻)이라고도 하는데 원작의 운자를 사용할 뿐 아니라 서로 대응하며 운의 순서까지도 원작의 운을 그대로 따른다. 의운은 원작에서 사용된 운자가 속한 운목에서 운자를 가지고 창작하는 방식으로, 동운(同韻)이라고도 하며 운자의 사용에 특별한 규칙이 없다. 용운은 원작에서 사용된 운자를 사용하되 반드시 그 순서를 따를 필요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⁵⁷⁾

54) 『옥수집』 권24에는 중국인 朱銘盤, 邱心坦, 袁世凱 등과 수창한 시가 실려 있고, 권25에는 杜甫의 시에 차운한 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55) 申光漢(1484~1555)은 『玉樓春』 차운사에서 “우리나라의 읍조와는 다른 이러한 창작에 익숙하지 않으나, 담긴 의미가 헛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들) 지어 바치며 가르침을 구하며 글의 교정을 바란다(敵邦音調有異, 不慣此作, 然盛意不可虛負. 錄呈求教, 伏希斤正)”라고 했다. 김윤식 또한 『詩餘學步序』에서 “내가 본래 성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반드시 오류가 많을 것(余本不解聲調, 必多舛誤)”이라고 했다.

56) 류종목은 조선 시대 565수의 1/4에 해당하는 137수의 사가 차운사라고 밝혔다. 앞의 논문, 208쪽; 김윤식은 20수의 사 전부를 차운하여 지었고, 李衡祥은 44수의 작품 가운데 35수를 차운했다. 이처럼 조선 후기 시인들은 차운의 창작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시인은 「무산일단운」, 「憶江南」, 「法駕導引」의 사조를 사용하여 연장체사를 주로 창작했으나 19세기 이후 이러한 창작 현상은 점차 줄어들면서 조선 후기에는 차운의 모방 창작이 성행했다. 이는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초기보다는 조선 후기에 자주 나타난 현상으로, 조선 시인들이 당송사를 수용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조선 시인들은 소식, 주희, 이백을 좋아하여 이들의 사를 많이 차운했다. 고려의 이체현과 같은 선도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소식의 사를 차운한 경우는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거시적 안목으로 인생의 고난을 헤쳐 나가며, 사의 경지를 끌어올린 그의 인격적 매력을 시인들이 추앙”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운은 계속해서 뛰어난 시인들의 궤적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창작방식”이 되었다.⁵⁷⁾

차운의 창작방식에 대해서는 단지 “문자 유희”에 지나지 않으며 “문자만으로 시를 짓는 것은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⁵⁸⁾는 비평과 “다른 사람의 詞에 억지로 운을 맞추는 것은 옳지 못하다”⁶⁰⁾는 부정적 평가가 있기도 하다. 그에 반해, 일본학자 우치야마 세이아(内山精也)는 차운의 방식을 통해서 작가들은 “유희와 경쟁, 원작과 뚜렷한 대비, 사교와 교유의 효과”⁶¹⁾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왕수조(王水照)는 차운의 창작 방법은 “사의 내용과 예술적 변화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⁶²⁾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면호는 이옥(李煜, 937~978), 소식(1037~1101), 진관(秦觀, 1049~1100), 하주(賀鑄, 1052~1125), 주방언(周邦彥, 1057~1121), 엽몽득(葉夢得, 1077~1148), 이청조(李清照, 1084~1155), 신기질(辛棄疾, 1140~1207), 손호연(孫浩然, 生沒 不詳, 송대 시인), 정섭(鄭燮, 1693~1766)의 사를 차운했다.

57) 劉放, 『中山詩話』, 『歷代詩話』(何文煥), 中華書局, 1982, 289쪽.

58) 錢錫生, 『論唐宋詞在韓國的傳播與接受』, 『江海學刊』 제3기, 2013, 190~191쪽.

59) 嚴羽, 『滄浪詩話』, 『歷代詩話』(何文煥), 中華書局, 1982, 688쪽.

60) 張炎 著, 夏承燾 校注, 『詞源注』,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27쪽.

61) 内山精也, 金育理 譯, 邵毅平 校, 『蘇軾次韻詞考』, 『中國韻文學刊』 第4期, 2004, 38쪽.

62) 王水照, 『蘇軾研究』, 河北: 河北教育出版社, 1999, 112쪽.

조면호가 운을 빌렸다고 밝힌 시는 8수이지만, 실제로 차운을 한 시는 모두 12개의 사조, 14수이다.

이 가운데서 차운을 통해 원작과 뚜렷한 대비를 보이거나, 유희 등의 효과를 나타내거나, 혹은 그 의미까지도 수용한 작품을 선별하여 함께 감상하도록 한다. 『화서인·비온 뒤의 열기』는 주방언의 『화서인·가을 느낌』을 차운한 작품으로 원작과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화서인·비온 뒤의 열기

정원에 졸졸 흐르는 맑은 물, 계단에 가득한 푸른 이끼, 나뭇잎 같은 작은 정자. 중간에 떠 있으니, 끝없는 물가에 이웃 오리 먹이 쪼아대네. 가난한 집에 부는 습한 바람, 화로에 연기 활활 타오르듯. 한참을 숨을 헐떡이니, 차라리 동짓달 매서운 추위가 좋구나. 가벼운 적삼 무정하고, 지나치게 촘촘하니, 땀 찬 코밑수염 족집게로 뽑으랴. 대나무 침상에 차가운 대자리, 누가 시원한지 평가하랴. 남은 제호탕 정수리에 들이부어 더위 식히고, 상자 살펴보네. 근심 어린 얼굴로 붓을 잡고, 글을 쓰며 단첩의 파초선 부치네.⁶³⁾

『화서인』이라는 사괘명은 『列子』에서 나왔다. “황제가 낮에 잠을 자는데, 화서국을 거니는 꿈을 꾸었다(黃帝晝寢, 夢游華胥之國)”에서 사괘명을 취한 것으로, 쌍조에 전편 9구, 후편은 8구로 모두 86자이다. 상편의 3, 5, 7, 9구와 하편의 2, 4, 6, 8구에서 모두 측성운으로 압운한다. 원작의 형식과 비교했을 때, 조면호의 『화서인』은 하편의 제6, 7구에서 한 글자씩이 부족하고, 상편의 세 번째 운자 이외에 나머지 운자는 원작과 같다. 내용을 상·하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편에서 ①정원 주위의 풍경 ②물가에 노니는 오리 ③화롯불처럼 따뜻한 습한 바람 ④참을 수 없는 더위에 대해 묘사했다면, 하편에서는 ①적삼을 적시고 코밑까지 땀이 찰 정도의 더위 ②대나무 침

63) 『華胥引·雨熱』“庭流滌碧，階蘚滋青，小亭一葉。泛在中間，看無涯畔鄰鳴啞。甕牖來是雌風，正烘爐熏熾。呼喘如半，我寧冬月寒怯。輕衫無情，至枚枚、汗髭當鑑。竹牀冰簟，誰人清涼評閱。灌頂醍醐餘瀝，檢看箱篋。愁把□毫，寫就葵扇單疊。”

상에 차가운 대자리를 깔고 더위 식힘 ③제호탕을 들이부어 더위를 식힘 ④ 부채질하며 글을 쓰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와 대비되는 주방언의 『화서인』에서는 가을의 쓸쓸함을 느낄 수 있다.

화서인 · 가을느낌

넷물은 들판을 흘러가고, 안개 낀 달은 어두운데, 잊처럼 떠나가는 배 한척. 언덕 위 모래는 평평하고, 부들에 머문 기러기 찬물에서 먹이 쪼아 먹네. 외로운 피리 소리 가을하늘에 울리고, 새벽바람 마주하며 눈물짓네. 붉은 해가 높이 떴으나, 술에 취해 일어나기 힘들네. 이별 감정 서로 얽히고, 자세히 바라보니 귀밑머리 죽집게로 뽑을 수 없네. 무도 적삼에 부채는 여전한데, 어찌 사람은 어여빠 여겨 자세히 보는가. 지난날 사랑을 살펴보니, 상자에 편지 가득하네. 근심 어린 얼굴로 등불 심지 자르니, 밤이 되어 눈물과 등불 서로 겹쳐 흐르네.⁶⁴⁾

상편에서 ①흐르는 넷물에 안개 낀 달, 흘러가는 일엽편주 ②먹이를 쪼는 기러기의 모습 ③가을하늘에 울리는 피리 소리에 눈물 흘림 ④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서술했다면, 하편에서는 ①이별에 노쇠해진 모습 ②물 건은 여전한데 변한 마음 ③지난날의 사랑을 추억함 ④등불 앞에서 눈물 흐르는 인물을 묘사했다. 주방언의 『화서인 · 가을느낌』에서, ‘안개 낀 달’, ‘떠나가는 배’, ‘기러기’, ‘외로운 피리’, ‘가을하늘’ 등의 어휘가 모두 가을에 느끼는 그리움과 슬픔을 연상시킨다면, 조면호의 『화서인』에서는 ‘가벼운 적삼’, ‘땀 찬 수염’, ‘대나무 침상’, ‘제호탕’, ‘파초선’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한여름의 더위와 열기를 연상시킨다. 주방언의 원작에서 나타난 의경이 가을의 ‘시원함’과 ‘쓸쓸함’이라면, 조면호는 비온 뒤의 열기인 ‘뜨거움’을 표현하며 원작과의 의경을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당 · 오대부터 송대의 황금시대를 거치고 쇠락한 시는 명말청초의 진유송

64) 『華胥引 · 秋思』“川原澄映，煙月冥濛，去舟如葉。岸足沙平，蒲根水冷留雁唼。別有孤角吟秋，對曉風鳴軋。紅日三竿，醉頭扶起還怯。離思相縈，漸看看、鬢絲堪鑑。舞衫歌扇，何人輕冷細閱。點檢從前恩愛，但鳳箋盈篋。愁剪燈花，夜來和淚雙疊。”

(陳維崧, 1625~1682)과 주이존(朱彝尊, 1629~1709), 왕사정(王士禎, 1634~1711)에 의해 다시금 부흥기를 맞는다. 청대 사는 당시 사행으로 가면서 청대의 문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한 조선의 문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조선의 사신들은 청의 학문과 서적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들의 문집이 조선에 많이 보급되기도 했다.⁶⁵⁾ 당시 청 사단은 사의 풍격에 있어서 “婉約을 正으로 하고 豪放을 變으로 하는 전통 관념을 따랐지만, 變을 사체 발전의 자연스런 결과로 인식하였고 완약 중심의 사단의 상황에서 호방사풍에 대하여 충분히 긍정함으로써 변체를 긍정하였다.”⁶⁶⁾ 남당의 후주, 이청조, 진관의 완약한 풍격은 물론이고 소식과 신기질의 호방한 풍격도 충분히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면호는 이들의 사풍을 두루 자신의 사 창작에 수용하였고, 솔직담백하게 문장을 짓는 청대 정섭의 사도 2편⁶⁷⁾ 차운했는데, 그 중 「서학선」에서는 원작과 똑같이 ‘술’을 빌어 술에 대한 인간의 감정을 묘사했다.

서학선 · 술, 정판교의 운을 빌리다

주인집에서 담근 술있주. 재자가인이라 오해했으니, 복사꽃 앞에 배꽃이 뒤에 있네. 붉은 석류에 이은 푸른 연근의 안주. 모두 몇 통의 술독인지, 오래도록 그대 원했네. 부드럽게 입을 적시며, 세차게 흐르니 어리석은 늙은이 빠져드네. 물어도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지 못하고, 술기운은 몸으로 먼저 통하네. 그렇지 않은가. 술은 영리해서, 차가운 곳에선 진심을 감추고, 따뜻할 땐 어울리지 않네. 마음 씀이 섬세하여, 부귀한 집에 바치면서, 장수를 축하하네. 이 부귀한 집은 따뜻하여, 다만 예전의 편안함에 의지해, 귀한 손님 좋은 벗과 술잔을 주고받네. 옥 술병 깨뜨리며 국 선생을 욕하면, 내 악랄한 방법을 다 쓰네.⁶⁸⁾

65) 유영해, 앞의 논문, 251~254쪽.

66) 이석형, 『왕사정 사론 연구』, 『중국학보』 62, 한국중국학회, 2010, 84쪽.

67) 나머지 한 수는 「賀新郎·憶花, 次鄭板橋青藤草書韻」이다.

68) 『瑞鶴仙 酒·次鄭板橋韻』, “東家松葉酒。誤才子佳人, 桃前梨後。紅榴繼青藕。都算取幾瓊, 要君久久。柔唇浸口。更滾到、癡丁愚叟。問它朝、它暮不知, 槽氣離身先透。 然否。麴生情點, 冷處非眞, 煖時非偶。費神工巧, 獻朱門, 祝眉壽。這朱門溫潤, 只依舊便, 酬酢高賓良友。碎玉壺、罵了麴生, 盡儂毒手。”

『서학선』은 『淸眞集』, 『夢窓詞集』에 모두 고평조(高平調)에 들어있다. 작품마다 구두(句豆)에 많은 차이를 보이며, 쌍조에 102자로 상편 7, 하편 5 혹은 6측운이 사용된다.⁶⁹⁾ 조면호는 정섭이 『서학선』에서 사용한 상편의 운인 주(酒), 후(後), 우(藕), 웅(甕), 구(口), 수(叟), 투(透), 하편의 운은 부(否), 우(偶), 수(壽), 우(友), 수(手)를 차운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편에서는 주인 집에서 담근 술잎주를 앞에 두고 아름다운 한 쌍의 남녀인 듯 복사꽃과 배꽃이 앞뒤로 핀 상황에 붉은 석류와 푸른 연근이 인주로 차려져 있다. 술독을 세어가며 한참을 기다린 술엽주를 드디어 마시게 되니, 부드럽게 입술을 적신 술에 늙어있는 곧 술에 빠져든다고 묘사했다. 하편에서는 술은 부자집에 바쳐질 때는 장수를 축하하지만, 지나치면 술병 깨뜨리고 욕하며 못된 행동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졌다. 조면호는 ‘그대’, ‘국 선생’이라고 술을 의인화했고, 유머의 방식을 사용하여 술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를 묘사했다.⁷⁰⁾

조면호가 차운한 정섭의 『서학선』에서는 운명으로 정해진 부귀공명과 길흉화복 앞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려는 헛된 꿈 버리고 술친구 찾아 세상의 명리에서 손을 떼며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서학선 · 술집

관위에 훔날리는 술집의 푸른 깃발. 마침 배꽃에 가랑비 내리니, 청명절 전후로 세. 새우와 소라 물고기와 연근 안주 쉬였구나. 하물며 오래된 향아리에 머리 박고 절하니, 개봉한 지 오래되지 않았네. 깊은 맛은 입에 맞아, 어부와 나무꾼 흠뻑 취하네. 물노니 돌아가는 시골길 어슴푸레한데, 사람도 밭그레 석양도 밭그레 붉게 물들이네. 이는가. 세상의 부귀공명, 꽃잎의 무성함과 시들은, 운명의 궤 속에 길흉이 정해져 있으니, 어찌 하나하나 따지겠는가. 한 잔 술에, 그대 장수 빌어주네. 그대 헛된 꿈 버리고, 술친구 찾기 바라네. 관 장식 풀어 술값으로 저당 잡히고, 지금부터 명리에서 손 떼려네.⁷¹⁾

69) 조면호의 원문은 구두점이 맞지 않아서 정섭의 『서학선』에 맞춰 구두를 표기했다.

70) 차주환, 앞의 논문, 179쪽.

가랑비 내리는 청명절을 전후한 때에 강가 술집에서 새우, 소라, 연근 안주를 놓고 술을 마시며, 묵은 술의 깊은 맛에 흠뻑 취하는 어부와 나무꾼의 모습과, 저무는 시골길에 사람도 석양에 붉게 물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하편에서는 세상의 부귀공명, 인간의 운명 또한 정해져 있으니 굳이 따지지 말고 한 잔 술로 잊으라고 말한다. 정섭의 「서학선」에서 술이 세상의 명리에 서 손을 뗄 수 있는 ‘위로의 술’이 되었다면 조면호의 「서학선」에서 술은 세상의 명리를 쫓는 ‘영리한 술’이 되었다. 이처럼 조면호는 차운사를 통해 유머와 유희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조면호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서술하기도 했는데, 「우미인」에서는 깊은 밤 타오르는 초를 눈물 흘리는 대상으로 묘사했다.

우미인 · 촛불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려는 마음 항상 끝이 나니, 이 밤은 얼마나 되는가. 오경의 종소리 뒤에 머리에는 잔잔한 바람 불고, 꿈은 푸른 비단 두른 창문 맴돌며 그림자 있고 없는 곳에서 생겨나네. 옥같이 살찐 얼굴 아위어도 난초 향기는 그대로인데, 그대 붉은 마음 바뀌었다고 하네. 칼로 부질없는 근심 자르니, 밝고 둥근 달이, 거울 빛에 흐르는 듯하네.⁷²⁾

이욱의 「우미인」을 차운하면서,⁷³⁾ 이욱이 「우미인」에서 포로로 끌려간 망국의 군주로서의 비참한 삶과 슬픔을 노래했다면, 조면호는 밤새 켜놓은 초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타기 전 초의 모습을 살이 찐 옥으로 표현했고, 밤새 타면서 흘린 촛농을 칼로 잘라내는 근심에 비유했다. 초를 묘사한 영물사로

71) 「瑞鶴仙·酒家」“青旗江上酒。正緬雨梨花，清明前後。蝦螺雜魚藕。況泥頭舊甕，新開未久。清醉可口。盡醉到、漁翁樵叟。問村墟、歸路微茫，人與夕陽薰透。知否。世間窮達，葉底榮枯，嘔中奇偶。何須計較，捧一盞，爲君壽。願先生一掃，長安舊夢，來覓中山渴友。解金貂付與當墟，從今脫手。”

72) 「虞美人·燭」“書情盡意時時了。此夜應多少。五更鍾後頭微風。夢繞碧紗窗影、有無中。玉肥消瘦蘭香在。慙道紅心改。並刀剪一種閑愁。恰是滿輪明月、鏡光流。”

73) 「虞美人」“春花秋月何時了，往事知多少？小樓昨夜又東風，故國不堪回首月明中！雕欄玉砌應猶在，只是朱顏改。問君能有幾多愁？恰似一江春水向東流。”

서, 조면호는 사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의인화의 수법으로 초를 표현했다.⁷⁴⁾ 조면호는 소식의 「수조가두」⁷⁵⁾를 차운한 「수조가두·흰 모란」에서도 붉은 모란인 위황과 노란 모란인 위자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흰 모란은 “전생의 나와 그대, 어찌 인간 세상을 꿈꾸나(夙世儂和你, 那夢到人間)”, “아침이 오니 웃음 짓고, 저무니 피곤하여, 잠자고 싶어 하네(朝來笑, 暮也困, 欲成眠)”, “눈과 같은 절개는 순결한 옥과 같네(雪操玉同全)”라고 하면서 흰 모란을 지조와 절개가 있는 사람에 비유하고 의인화하면서 자신은 흰 모란을 바라보는 대상으로 표현했다.

「청옥안·무제」에서는 하주의 「청옥안」을 차운하면서 원작과 마찬가지로 슬픔을 묘사했다. 하주가 까닭 모를 슬픔의 양을 “냇가에 안개 자욱한 풀, 성안 가득 바람에 날리는 버들, 매실 노랗게 익을 때 내리는 비(一川煙草, 滿城風絮, 梅子黃時雨)”에 비유했다면, 조면호는 자신의 생애와 노년의 슬픔에 대해서 “열은 안개에 시들어버린 풀, 밤바람에 하늘거리는 버들, 가끔 내리는 황혼의 비(淡煙衰草, 晚風輕絮。陣陣黃昏雨)”에 비유했다.

조면호는 소식의 사를 차운하면서 은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그대로 표현했는데, 「팔성감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팔성감주·비속에 드는 생각, 동파의 운을 쓰다

비는 무슨 맘으로 안개 잔뜩 머금고 돌아왔다가, 무심하게 안개 내뿜고 돌아가는
가. 누각 앞의 높은 나무, 주렴 밖 첩첩 산봉우리엔, 며칠이나 봄빛 비쳤는가. 병든
나그네 언제 일찍이 나갈 생각 했는가. 소식은 절로 끊기네. 인간사 서로 상관하지
않으니, 도리어 기심 잊음에 함당하네. 앉아서 청빈한 집 서쪽 물가를 생각하
니, 푸른 시내 굽이치는 곳에, 대 바람 소리 숲을 채우네. 지조 있는 사람 거하는

74) 靳亞州, 「趙冕鎬對宋代詞人的接受研究」,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12쪽; 조면호의 영물사에는 「水調歌頭·白牡丹」, 「虞美人·燭」, 「賀新郎·憶花」 등이 있다. 영물사는 자연경물을 주요 묘사대상으로 삼은 사로써, 식물, 동물, 기구, 절기의 풍물을 묘사하면서, 저자 자신이 사물과 함께 있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혹은 자신은 사물을 바라보는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75) 소식은 「수조가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고하고 인생의 우여곡절을 서술하며, 아우와 함께 아름다운 달을 감상하고 싶은 심정을 노래했다. 소식은 스스로 은퇴의 삶을 택했지만, 여전히 형제와 친구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따뜻하다고 고백한다.

곳엔, 한가로이 앉아 세상사에 얽매일 일 드물구나. 날이 개면 돌다리 건널 수 있으니,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 것 어기지 않도록 돌아보네. 청빈한 집 아래로, 딱딱 들리는 나막신 소리, 새 옷을 터네.⁷⁶⁾

비 내리는 날 드는 생각을 읊은 작품으로 상편에서는 ①비 내리는 정경 ②주렴 밖으로 보이는 나무와 산봉우리 ③병들어 세상과 단절된 자의 모습 ④세속의 번뇌가 사라짐을 서술했다면, 하편에서는 ①푸른 시내 흐르고 바람 소리 시원한 청빈한 곳 ②지조 있는 사람 있는 곳엔 세상사 얽매일 일 없음 ③다시 돌아올 길 바라봄 ④은거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소식의 『팔성감주·참료자에게 부침』의 운을 빌렸을 뿐 아니라 ‘은거’하고 싶은 마음까지 그대로 작품에 표현했다. 특히 “지조 있는 사람 거하는 곳엔, 한가로이 앉아 세상사에 얽매일 일 드물구나”처럼 글 읽는 선비의 지조 있는 삶과 연관시키면서, 속세를 벗어나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도교적 인생관을 드러냈다. 『팔성감주·참료자에게 부침』은 소식이 항주로 유배되었을 때 찾아온 참료자(道潛)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지은 것이다. 하편에서 “시인들이 서로 뜻이 맞아도, 그대와 나 같은 자는 드물구나. 훗날 뱃길 따라 동쪽으로 오겠노라 약속했으니, 사공의 우아한 뜻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네(算詩人相得, 如我與君稀. 約他年、東還海道, 願謝公、雅志莫相違)”라고 하면서 소식은 세속을 벗어나서 참료자와 오랜 우정 쌓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출했다. 조면호는 소식의 원작에 사용된 상편의 운자 歸, 暉, 非, 機와 하편에서 사용된 운자 靠, 稀, 違, 衣를 차운하여 작품을 창작했다. 특히 상편의 마지막 구절인 “누가 동과 노인처럼, 백발이 된 뒤에야 기심을 잊으리오(誰似東坡老, 白首忘機)”처럼 『장자』에 나오는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없으니 세상과 다툼 일 없음을 고백한다. 세속을 초월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며 정신과 본성을 안정시키려는 조면호의 태도 및 인생관 역시 소식의 사상을 본받고 있음

76) 『八聲甘州·雨中懷, 用坡韻』“雨何心漠漠鎖烟來, 無心放烟歸。這樓前高木, 簾來疊嶂, 幾日芳暉。病客何曾思出, 音緒自然非。人事無相管, 倒合忘機。坐想清門西畔, 是碧溪轉處, 竹籬林霏。有高人居住, 閒坐世情稀。待天晴、橋缸可涉, 願一來、一往不令違。清門下、啜啄鳴屐, 拂我新衣。”

을 알 수 있다. 조면호는 또 다른 작품 「팔성감주·독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심을 잊는 것이 최상(最上忘機)”임을 말하면서, 관직에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 또한 헛된 마음으로 속세를 벗어나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으려는 인생관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좋은 향기의 심지 불살라 뜨거워도, 서적 서로 떨어지니 무방하네. 나를 비웃지 말라, 좁이 살아가면서, 무늬 비단 옷을 삼는다고”⁷⁷⁾라고 하면서 글 읽는 선비의 모습 또한 보여주었다.

2) 은괄(隱括)을 통한 이백(李白)의 산문 수용

은괄은 본래 기울어지고 굽은 나무를 곧게 뺐던 기구로, 구분하자면 굽은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은이라고 하고 모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괄이라 한다. 『순자』에서 “굽은 나무는 반드시 은괄로 뒤집거나 수증기에 쬐서 바로 잡은 연후에야 곧아진다”⁷⁸⁾라고 했고, 『문심조룡』에서도 “관건은 용재를 더 하는 것에 있다, 정리를 바로잡고, 문체의 결점을 교정하는 것이다”⁷⁹⁾라고 했다. 은괄사는 시와 문장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고쳐서 사로 창작하는 형식이며, 독특한 문체로서 표현방식을 다양하게 할 뿐 아니라 송대 사인들의 문학과 문체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⁸⁰⁾

은괄의 형식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왔으나,⁸¹⁾ ‘은괄’이라는 용어를 사에 사용한 사람은 바로 복송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⁸²⁾ 소식이 처음 은괄사를

77) 「八聲甘州·看書」“古人無萬里卷中來，還向卷中歸。問來時歸路，池窗夜雨，山閣斜暉。談說千年往事，和我笑還悲。可意誰誰在，最上忘機。記否看多看少，一斗時喚取，潮暈紅暈。有青青書帶，小砌履痕稀。熱金爐、名香一炷，也不妨、黃奶自相違。休嘲我，蠹蟲生活，紋錦爲衣。”

78) “故朽木必將櫟栝丞矯然後直。『荀子·性惡』 제23, 上海古籍出版社, 2012, 337쪽.

79) “蹊要所司，取在熔裁，隱括情理，矯揉文采也。”劉勰，『文心雕龍·鎔裁』 제32, 上海古籍出版社, 2012, 217쪽.

80) 吳承學，『論宋代隱括詞』，『文學遺產』，2000, 74쪽.

81) 吳承學은 『全唐詩』에 수록된 同谷子の 「五子之歌」는 『尚書·五子之歌』의 隱括體라고 했다.

82) 詞에 있어서도 晏幾道(1038~1110)가 소식보다 먼저 唐 張籍의 詩 「贈王建」을 은괄하여 「臨江仙」을 창작했고, 劉幾(1008~1088)가 王安石의 詩 「與微之同賦梅花得香字三首」를 은괄하여 「梅花曲」을 짓기도 했으나, 은괄이라는 용어 자체는 소식의 사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식의 대표적인 은괄 작품으로 「哨遍」은 陶淵明의 「歸去來辭」를 은괄했고, 「水調歌頭」는 韓愈의 「聽穎師彈琴」을 은괄했으며, 「定風波」는 杜牧의 「九日齊山登高」를 은괄했고, 「浣溪沙」는 張志和의 「漁歌子」를 은괄했다. 吳承學, 위의 논문, 75~76쪽.

시도한 이후로 은팔은 사 창작에 있어서 하나의 방식이 되었고, 그 뒤로 黃庭堅, 진관, 신기질, 劉克莊 등의 사인들이 간간이 이런 사를 지었다.

소식은 陶淵明의 「歸去來辭」를 은팔하여 「초편」을 창작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은팔은 가사를 고치기는 하나 그 의미는 바꾸지 않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도잠의 귀거래 암송을 좋아했으나, 음률이 삽입되지 않은 것에 항상 신경을 썼다가, 최근에서야 살짝 더하거나 덜어내어, 반집초 초편에 맞췄다. 그 가사는 조금 고쳤으나 그 의미는 바꾸지 않았다.⁸³⁾

“가사는 조금 고쳤으나 그 의미는 바꾸지 않는 것”으로 은팔사는 원작의 문장을 “조금 더하거나 덜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수정된 문장에 “음률을 입힌”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식의 「초편」의 서문에 나타난 창작 동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도연명이 귀거래를 지었으나, 그 가사만 있고 곡조가 없었다. 내가 동쪽 언덕을 개간하고, 그 위에 설당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모두 누추하다며 비웃었다. 오직 파양 사람 동의부만 지나가다가 보고 좋아하며, 이웃이 되겠다고 했다. 이에 귀거래사를 취하고, 조금 더하거나 덜어내어 성률을 맞춘 뒤 의부에게 주었다. 가동에게 이를 노래 부르게 하고는, 때로 동파에서 어울리며 쟁기를 내려놓고 따라 부르면서 쇠뿔을 두드려 박자를 맞추니,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⁸⁴⁾

소식은 도연명의 「귀거래사」가 가사만 있고 곡조가 없는 것을 보고 기존 가사를 조금 더하거나 덜어내고 음률을 맞춘 뒤, 이를 동의부에게 주고 같이 어울리며 노래 불렀다고 했다. 즉 기존의 곡 「초편」에 맞춰 가사를 채워 넣

83) “舊好誦陶潛歸去來，常患其不入音律，近輒微加增損，作般涉調哨遍，雖微改其詞，而不改其意。”『蘇軾全集』권78, 尺牘一百九首 「與朱康叔十七首」

84) 公舊序云：“陶淵明賦歸去來，有其詞而無其聲。余治東坡，築雪堂於上，人俱笑其陋。獨鄱陽董毅夫過而悅之，有卜鄰之意。乃取歸去來詞，稍加鑿括，使就聲律，以遺毅夫。使家僮歌之，時相從於東坡，釋耒而和之，扣牛角而爲之節，不亦樂乎。”『全宋詞』，臺北：古新書局，1975，307쪽.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송대에는 시를 곡에 맞춰 노래하는 풍조가 있어서 소식 이전에도 은팔사들이 창작되었으며, 은팔이라는 창작 방법은 음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팔사의 출현은 문체의 내부적 연원에서 볼 때, 송대 사람들이 시를 곡에 맞추어 노래하는 풍조와 연관이 있다. …… 시가에 음악성을 부여하는 것은 은팔사 창작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은팔사의 서문에서도 그 창작 목적은 걸출한 작품에 음악을 배합시켜 노래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⁸⁵⁾

고려·조선 사인 가운데 은팔사를 창작한 사람을 살펴보면, 고려 시대 최집균(崔執鈞, 생졸년 미상)이 가장 먼저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剔銀燈·與歐陽公席上分題」를 은팔하여 「剔銀燈詞」를 지었고, 조선 시대 정구(鄭球, 1787~1849)의 「淸平樂·管城子」는 한유(韓愈)의 산문 「毛穎傳」을, 신광한의 「億王孫·戲贈童女八娘」은 두목(杜牧)의 시 「嘆花」를, 홍적(洪迪, 1549~1591)의 「念奴嬌」는 도연명의 여러 시문을 은팔하여 창작한 것이다.⁸⁶⁾ 이들은 모두 은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면호는 이백의 산문 「桃李園序」⁸⁷⁾를 은팔하여 「洞仙歌」를 창작했고, 「동선가·도리원 서문을 은팔하다」라고 서두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동선가·도리원 서문을 은팔하다

덧없는 인생은 꿈과 같으니, 묻노니 즐거움이 시종 얼마나 되랴. 촛불 들고 봄에 노닌 것은 옛사람들이었네. 만물이 머무는 곳, 천지는 무정하고, 세월이란, 오랜 시간을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 라네. 헤련처럼 모두 글 숨씨 빼어난데, 강락이 시가 읊조리니, 복사꽃 오얏꽃 핀 뜰에서 나를 부르네. 고이한 담론과 천륜의 즐거운 일을 거닐며 감상하고, 이토록 오랫동안 꽃 앞에서 달 아래서 취하네. 고이한

85) 吳承學, 앞의 논문, 77쪽.

86) 楊焄, 「漢籍東傳與韓國樂括詞的創作」, 『中山大學學報』 제50권 제5기, 2010.

87) 조면호는 이백의 문집에 수록된 「春夜宴桃李園」이 아니라 『古文眞寶』에 수록된 「桃李園序」를 참고했다. 위의 논문, 92쪽.

심정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시를 지어야하니, 금곡의 술은 분명하여, 그대 별주 마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네.⁸⁸⁾

「동선가」는 당 교방곡으로 『악장집』에는 ‘中呂’, ‘仙呂’, ‘般涉’의 궁조에 모두 삽입되어 있으며, 구두(句豆)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東坡樂府』에 사용된 「洞仙歌令」을 표준으로 삼는다. 상편의 제2구에는 2, 3의 구법이 있고, 작품 전체에 1, 2개의 친자(襯字)를 더할 수 있다. 음절이 여유롭고 매우 자유로우며 늘어지는 운치가 있다.⁸⁹⁾ 위 작품은 모두 84자로 상·하편에 각각 시(始), 시(是), 자(子), 이(以), 리(裏), 이(爾)의 3개의 측운을 사용했다.

그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보면 상편에서는 ①꿈과 같은 덧없는 인생 ② 초봄 들고 봄을 즐긴 옛사람들 ③천지의 무정함과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묘사했고, 하편에서는 ①글 솜씨 뛰어난 자들과 꽃이 핀 뜰에서 어울림 ②꽃과 달 앞에서 담론하며 취함 ③아름다운 시를 지어 별주를 피하고자 함을 서술했다.

이백의 「春夜宴桃李園序」는 봄날 정원에서 형제들과 모여 잔치를 벌이며 시와 부를 창작하고 이를 엮어 책으로 만들면서 쓴 서문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천지는 만물을 맞이하는 여관이고, 시간은 긴 세월을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덧없는 인생 꿈과 같으니, 즐긴다 한들 얼마나 될까? 옛사람들이 초봄 들고 밤에 노닌 것은 진실로 이유가 있었다. 하물며 따뜻한 봄날이 안개 낀 경치로써 나를 부르고, 천지가 나에게 문장을 빌려주었음이라! 복숭아꽃 핀 향기로운 뜰에 모여, 천륜의 즐거운 일을 펼치니, 이우들의 글 솜씨가 빼어나 모두 혜련과 같은데, 내가 읊은 시만이 강락에게 부끄러워서야 되겠는가? 그윽한 감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고이한 담론은 점점 맑아진다. 화려한 잔치를 벌여 꽃 사이에 앉아, 새

88) 「洞仙歌·櫟括桃李園序」 “浮生若夢，問爲歡終始。秉燭春遊古人是。萬物之逆旅、天地無情，光陰者，百代過人客子。惠連同俊秀，康樂詠歌，桃李芳園召我以。游賞高談處、樂事天倫，長若此、醉花前月裏。且要雅懷伸、有佳詩，金谷酒分明、不容罰爾。”

89) 龍榆生, 앞의 책, 102쪽.

모양의 술잔을 주고받으며 달 아래 취한다. 아름다운 글이 없으면 어찌 고이한 심정을 드러내랴? 만약 시를 짓지 못하면 그 벌은 금곡의 별주 수에 따를 것이다.⁹⁰⁾

위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천지는 여관이고 시간은 나그네와 같음 ②꿈처럼 덧없는 인생 마음껏 즐기자 ③옛사람들이 밤까지 노닌 것은 이유가 있으니, 따뜻한 봄을 맘껏 즐기자 ④뜰에 모여 모두가 글 솜씨를 자랑함 ⑤담론이 끝나지 않음 ⑥글을 짓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취함 ⑦시를 짓지 못하면 벌주를 마셔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면호의 「동선가」와 비교했을 때, 가사의 내용과 의미는 대략 비슷하다. 이백의 원문에서 사용된 ‘꿈과 같은 덧없는 인생’, ‘만물을 맞이하는 여관’ 등의 자구를 대체로 모두 사용했다. “압운하지 않은 산문의 내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문장을 수정하고, 압운을 맞춰가며 사를 창작한다는 것은 작가의 상당한 창작능력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조면호의 중국어 실력 및 음악적 재능을 충분히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⁹¹⁾ 조면호는 중국의 문학을 수용하면서 단순한 모방적 글쓰기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적 감각과 음악적 재능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인생관 또한 작품에 그대로 드러낸 것을 알 수 있다.

4. 나가는 말

이상으로 조면호의 사 창작과 중국문학의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면호 사의 창작의 특징과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90) 「春夜宴桃李園序」“夫天地者，萬物之逆旅也，光陰者，百代之過客也。而浮生若夢，爲歡幾何？古人秉燭夜遊，良有以也。況陽春召我以煙景，大塊假我以文章。會桃花之芳園，序天倫之樂事。群季俊秀，皆爲惠連；吾人詠歌，獨慚康樂。幽賞未已，高談轉清。開瓊筵以坐花，飛羽觴而醉月。不有佳作，何伸雅懷？如詩不成，罰依金谷酒數。”

91) 楊焘, 앞의 논문, 91쪽.

첫째, 창작 방식에 있어서 조면호는 김영수, 윤상의, 신응조, 이응진과 교류하며 창화했고, 작품의 내용을 보면 글 읽는 선비의 모습과 그들의 곤궁한 삶, 속세를 벗어나 생활하는 동료 및 동료 부친에 대해 칭송했다. 창화사를 통해서 신선 세계를 지향하는 조면호의 도교적 세계관 및 인생관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조면호의 인생관은 특히 노년의 삶과 살아온 삶에 대한 고백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인생무상이라는 깨달음은 세속을 초월한 삶, 도교적 세계관으로 나타나고, 꿈이라는 제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새벽녘에 문득 드는 생각은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이었고 고단했던 인생에 대한 성찰이었다.

셋째, 조면호는 이별과 슬픔, 그리움의 감정을 자주 토로했으며, 이러한 감정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제재를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한여름의 더위, 예서에 대한 감상, 병풍의 자수, 꽃과 그림에 대한 감상뿐 아니라 도둑이 든 일상의 모습, 휴식하며 드는 생각까지도 시를 통해 보여주었다.

넷째, 조면호는 차운과 은관 수법을 사용하여, 당, 남당, 송, 청대 사인의 작품을 수용하고 모방했다. 차운을 통해서는 원작과의 대비를 뚜렷하게 보여주거나 혹은 원작과 동일 대상을 노래하면서 유희의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차운을 활용한 긍정적인 창작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백의 산문을 사의 운문으로 은관하여 그 의미를 보존하면서 자신의 언어적 감각과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었고, 외래 문학을 수용하는 창작 방법을 잘 활용했다.

조면호는 40개의 사조를 사용하여 63수의 시를 지었다. 고려·조선 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무산일단운」 대신에 「태상인」 10수, 「여몽령」 4수, 「금루곡」 3수를 제외하면, 모두 하나의 사조에 1수 내지는 2수의 시만을 지어 다양한 사조를 활용하고자 했다. 조선 시대 일부 시인들이 자신의 사 전부를 차운하거나 동일 사조를 다수 사용한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새로운 시도로서 후배 시인들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전번역원DB <http://db.itkc.or.kr/>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蘇軾全集) <https://ctext.org/wiki.pl?if=gb&res=861929>
- 조면호, 『玉垂集』
 김용태,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 옥수 조면호의 시 세계』, 파주: 돌베개, 2008.
 柳己洙, 『歷代韓詞總集』,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楊海明, 이종진 역, 『당송사풍격론』, 서울: 신아사, 1994.
 王水照, 『蘇軾研究』, 河北教育出版社, 1999.
 龍榆生, 『唐宋詞格律』, 上海古籍出版社, 2004.
 張炎 著, 夏承燾 校注, 『詞源注』, 人民文學出版社, 1998.
 『全宋詞』, 古新書局, 1975.
 鄭 燮, 『鄭板橋全集·詞鈔』, 世界書局, 1936.
 何文煥 輯,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2.
 『文心雕龍』, 上海古籍出版社, 2012.
 『荀子』, 上海古籍出版社, 2012.
- 靳亞州, 『趙冕鎬對宋代詞人的接受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內山精也, 金育理 譯, 邵毅平 校, 『蘇軾次韻詞考』, 『中國韻文學刊』 第4期, 2004.
 吳承學, 『論宋代隱括詞』, 『文學遺產』 第4期, 2000.
 김용태, 『산문 작품을 통해 본 玉垂 趙冕鎬의 문학적 지향』, 『韓國漢文學研究』 36, 한국한문학회, 2005.
 _____, 『玉垂 趙冕鎬의 遊戲의 시정신』, 『漢文學報』 15, 우리한문학회, 2006.
 김현주·김영미, 『朝鮮詞人趙冕鎬之次韻中國詞考察』, 『中國研究』 61, 중국연구소, 2014.
 柳基榮, 『蘇軾與韓國詞文學的關係』, 『復旦學報』 제6기, 1997.
 柳種睦, 『高麗 및 朝鮮 문단에 있어서의 中國 詞文學의 수용과 전개』, 『中國學報』 40, 한국중국학회, 1999.
 양승목, 『옥수 조면호의 기몽류 글쓰기와 자아의 탐색』, 『민족문화사연구』 64,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李寶龍, 『朝鮮詞文學發展論略』, 『東疆學刊』 제26권 제2기, 2009.
 이석형, 『왕사정 시론 연구』, 『중국학보』 62, 한국중국학회, 2010.
 楊 焘, 『漢籍東傳與韓國隱括詞的創作』, 『中山大學學報』 제50권 제5기, 2010.
 유영혜, 『19세기 시문학 유행의 배경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錢錫生, 『論唐宋詞在韓國的傳播與接受』, 『江海學刊』 제3기, 2013.
 조창록, 『玉垂 趙冕鎬의 '詞'에 대하여』, 『漢文學報』 12, 우리한문학회, 2005.
 차주환, 『한국사문학연구(4)-자료정리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8(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965.

趙冕鎬的朝鮮詞創作與中國文學受容考察

金瑛美*

朝鮮19世紀詞人之一趙冕鎬，在作品數量和質量方面取得了卓越的成果。在朝鮮後期詞團上，一個人的創作活動顯著增加，其中趙冕鎬是先驅，使用多種題材，利用40個詞牌創作詞。特別是通過詞的交流活動擴大了詞文化，趙冕鎬與文人們交流，創作了贈答詞和唱和詞，他主要在人生的後半期創作了詞，表現了人生的哲理。他既表達了人的普遍情感，又特別通過對老年生活的描寫，揭示了人生的無常。趙冕鎬經常表達分離，悲傷和渴望的感覺，這些感覺在日常生活中也運用了各種題材來創作。

在接受中國文學的同時，趙冕鎬通過次韻和隱括的創作方法，模仿唐，宋，清的著名詞人的作品，從而吸收了內容和形式。不僅接受了原作的韻味，還充分利用了其詞意，不是單純的文字遊戲，而是作為一種創作手法。另外，通過利用與音樂密切相關的隱括的創作方式，將李白的散文改為韻文等多種對創作的嘗試，趙冕鎬充分展示了對文學創作的積極努力和文學才能。

主題語：趙冕鎬，唱和詞，中國詞，次韻，隱括，人生無常，夢，遊戲的，道教的 人間觀

논문투고일 : 2021년 1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2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2월 21일

* 韓國外國語大學校